

세기를 이어 빛나는 승리의 7.27

가는것은 세월이고 남는것은 추억이라고 한다.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진승의 축포성을 울린 때로부터 어언 67년의 세월을 가까이하고있다.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운명을 수호하고 조선의 힘을 단방에 파시한 7.27의 기적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더욱 빛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은 침략세력들이 조선전선에 들이민 병력과 화력기재의 밀도와 격렬성에 있어서나 전쟁수법의 야만성과 횡포성, 잔인성에 있어서 인류전쟁사에 류례없는것이였다. 당시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 도발자들은 《아침은 해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만큼 공화국은 청소하였다.

그러나 조선전쟁의 결과는 세상사람들의 우려와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침략세력은 《조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사단을 투입하면 충분하다.》고 떠벌이며 72시간내에 조선을 정복한다고 하였지만 악몽과도 같은 기나긴 2만 7 000여시간(3년)이나 수많은 대소전투에서 인민군대에 의하여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엄연한 역사적사실앞에서 적들은 전멸하였고 진보적인류는 조선을 영웅의 나라로 격찬하였다.

천제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지략, 탁월한 령군술로 인민군대를 승리로 이끄시어 세계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7.27전승선화를 창조하시였다.

전사의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전체 인민을 불리일로 끌고 전진과 후방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나라의 모든 군사적합력을 전쟁수령에 총동원하여 강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신 그런 절세의 위인, 전설적영웅을 인류역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전쟁의 첫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을 내놓으시고 인민군대를 조국수호전으로 불리일으키시였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 3년간 수만여리의 화선강행군을 이어가시며 독창적인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로 침략세력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짓무개버리시였다.

주동적인 반공격전략제시, 현대포위전의 모범창조,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술수사, 강도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적후파괴조활동, 기동고사포병중대활동 등 모든 군사지략과 전법, 전술은

천제적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그이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현대전의 빛나는 전법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이 다양한 전법들은 풍부한 전쟁경험에 기초하고 나라의 지형조건과 인민군대의 무장장비,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전법이였으며 수적기술적우세에 의존하고있던 침략자들의 군사전략을 파탄시키고 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대전해방작전만 보아도 그의 비범한 군사적지략을 다 알수 있게 한다.

대전은 령남과 호남지방을 련결하는 군사적요충지였

고 당시 남조선의 립시 《수도》였다.

금강의 《불퇴의 선》이 모래성처럼 무너지자 적들은 대전일대에 대한 방어에 집착하였다. 하여 막대한 유생력량과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이 대전지역에 집중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진길을 헤치시고 서울에 있는 전선사령부에 나오시어 작전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선정황을 구체적으로 꿰뚫어보신 그이께서는 대전해방을 위한 작전적모습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 주신 작전안에 따라 인민군

부대들은 대전에 대한 포위를 형성하였으며 강력한 정면타격과 함께 보병들로 구성된 소부대들을 대전시에 진입시켜 적의 내부를 혼란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리신 총공격명령에 따라 인민군부대들은 대전해방작전을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이 작전에서 인민군장병들은 2만 4 220여명의 적들을 살상포로하고 2만 80여명의 저격무기와 150여문의 각종 포, 40여대의 탱크, 1 010여대의 장갑차, 자동차를 파괴 및 로획하였으며 30여대의 비행기를 격추격사

하는 혁혁한 전과를 이룩하였다.

이렇듯 전쟁 3년간의 매일, 매 시각은 승리의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진 나날이였다.

하기에 세계인민들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을 《희세의 영웅》, 《천하명장》,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이라고 높이 칭송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승리를 《세계사적위훈》, 《현세기의 기적》이라고 격찬하였다.

7.27전승의 사변과 기적은 련전련승의 력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추억은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럽다.

침략자들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한다는 조선전쟁의 쓰디쓴 교훈을 잊고 정전은 휴식이다, 싸움은 이제부터이며 침략의 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백두산악 같은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밑에 일당백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과 기상앞에 도발세력들은 감히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빛내이시고 공화국의 군력을 더욱 강화해주시였다.

공화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시고 적대세력들의 침략의 광풍을 걸음마다 짓눌러버리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없었더라면 이 땅에서는 열백번도 전쟁이 터졌을 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말로써가 아니라 총대에 의해 지켜진다. 7.27의 전승선화, 반세기이상을 헤아리는 적대세력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공화국이 찾은 진리이다.

반공화국침략세력의 도전과 위협책동에는 조강경대용으로 대담하는것이 공화국의 드림없는 의지도고 배짱이다.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힘이 강할 때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오늘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군력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중충렬협 막아서는 시련의 고비들을 강행돌파하여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에 의하여 공화국은 남들이 수신훈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군사적기적들을 짧은 기간에 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내어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르게 되였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자위적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시는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시어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고 ◎

복구와 창조

주제39(1950)년 11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한 일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게 되였다. 내용인즉 함경남북도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파괴정황을 알아보고 복구할 안을 세울데 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론 지금 우리는 험거운 전쟁을 하고있으며 전쟁은 장기화되고 더욱 가열해지고 있다고, 그러나 어느때가 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며 승리한 조국강도에 더 큰 공장들을 지을것이라

6 억장의 벽들

모든 전선들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던 주제42(1953)년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서 경제부분 일꾼들을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고, 총을 만들어도 제손으로 만들고 앞으로 공장을 복구해도 제손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며 피해정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 일군이 수십여일동안에 걸쳐 함경남북도의 피해정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평양에 돌아왔을 때 이미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전후 복구건설계획작성을 본격적으로 내밀고있었고 그가 제출한 조사자료와 복구안은 그 계획방안에 요긴하게 쓰

전쟁이 멀지 않아 끝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인차 복구건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며 그러자면 해마다 벽들을 얼마나 생산하면 되겠는지 함께 라산해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해방후 종합대학정사를 지을 때 소요

된 자재량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에 군이 200개인데 한개 군에 한동씩 건설하는것으로 보아도 200동은 건설해야 할것이라고 하시며 그렇게 보고 벽들량을 라산해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종합대학을 건설할 때

인재중시는 전화의 나날에도

다른 나라에 류학갔던 학생들이 조국해방전쟁시기 자위적으로 귀국하여 인민군대에 입대하고 전선으로 임명되였다.

어느날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부와 교육부문의 해당 일꾼들에게 류학생들의 입대와 부대배치를 당장 중지시키고 그들을 빨리 되돌려 보내어 류학을 계속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날 해마다 벽들은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다 하여도 인재양성사업을 중단할수 없

벽들을 300만장 썼다고 하시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해마다 벽들을 6억장은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복구건설계획과 그 예산작성방법을 명철하게 밝혀 주시였다.

다그 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인민군대의 각 군중, 병총사령관들과 군사학교 일꾼들은 이미 입대한 류학생들을 즉시 제대시켜 다시 돌려보내도록 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전달받게 되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로 되돌아가는 류학생대표들을 만나시고 동무들을 공부시키면서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전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전후복구건설에 필요한 선진과학기술을 많이 배워 가지고 오라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시

우리는 승리를 노래하노라

김영일

7.27! 명철의 거리에 아름다운 꽃들은 이 땅에 수놓은 진승의 환희인가 하늘땅 들쭉하게 울리는 노래는 못 잇을 50년대 위훈을 전하는 추억의 메아리인가

가슴에 훈장을 단 로병들에게 삼가 경의를 드리는 뜻있는 날이어 이 땅을 지켜 퍼홀려 싸운 수호자들 그 녀들이 잠든 산과 들 그 어디에나 붉은 꽃 경건히 놓여지는 생각깊은 날이어

세월은 많이도 흘렀고 세대는 바뀌어도 어지 잊으랴 가려했던 전화의 그 불비를 그리도 생을 아낌없이 바친 영웅들 승리, 오직 승리만을 위해 서슴없이 죽음도 맛받아나간 불굴의 용사들이여

승리란 무엇이던가 그것은 나라없는 노예로 또다시 살수 없어 총창을 어깨에 틀어온 인간의 존엄이었고

수령님 주신 땅에 행복의 터전 꾸우어가며 그지없는 생의 희열로 뉘뉘던 가슴에 불타던 사랑

그렇더라 승리란 피의 절전에서 지켜낸 우리의 공화국 그것은 후대들의 웃음과 노래가 비낀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며 누리며 사는 행복과 기쁨 그 모든것

전화의 용사들 안아온 그 승리 50년대의 그 전통은 오늘도 굳건하거나 영웅들에게 드리는 꽃을 경의라고만 하지 마시라 그들처럼 전승세대처럼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 맹세가 어려웠거나

지켜가리라 승리의 정신 이어가리라 승리의 전통 원수님따라 끝까지 가야 할 천만리길에 언제나 7.27! 이날만 있으리라 오, 우리는 승리만을 노래하리라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령활무쌍한 주체전법이 안아온 승리인 동시에 인민들과 군인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 낳은 승리이기도 하다.

사랑과 믿음으로 이긴 전쟁! 주제40(1951)년 11월 어느날 한 일꾼으로부터 한 달동안에 정비행기를 5대나 좌멸군 노아런 영웅전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높이 치하하시면서 그 전사의 이름과 나이, 고향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전사의 부모형제들이 개성에서 멀지 않은 적구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아신 그이께서는 영웅전사의 가족을 구출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피

흘러 싸우는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지체하지 말고 어서 편대를 적후에 있는 전사의 고향으로 보내라고 이르시였다.

그 사실을 두고 당시 여러 나라 언론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한개 편대를 풀어 병사의 가족을 적구에서 구출》,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일》, 《전쟁의 승리는 북조선의것》이라는 표제를 달고 널리 보도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조국의 한치의 땅도 내어줄수 없으며 적의 우박치듯 쏟아지는 폭탄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는 1211고지 용사들을 위해 깊은 밤 군사지

휘관을 전화로 찾으시어 공을 보내주셨으니 풍나물도 키우고 두부도 만들어 먹이라고, 선기가 나는데 전투원들에게 더운밥과 죽을 먹이고 잠자리도 출지 않게 해주도록 당부하신 사랑의 이

야기도 있다. 병사들의 건강을 위해 세계전쟁사에 있어 본적없는 화선휴양소를 내오도록 하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조국해방전쟁의 갈래들이 새겨져있다.

어느 한 농가에 드시어 집 주인이 울린 닭을 그대로 두게 하시고 닭알까지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일화와 전쟁의 불비속에서 전방적무상치로 제가 실시되고 평양의 여러

체 인민이 무적의 힘을 지니고 용맹을 떨치게 한 원동력이었다.

본사기자

산을 위해 한사람같이 일며 했던 후방의 너인들...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고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질주해온 공화국의 력사는 절세위인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 믿음의 력사이다.

그 사랑과 믿음에 의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혼연일체의 아름다운 화폭도 펼쳐졌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오늘 공화국은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